

성적 재현에서 여성 배우의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제작 현장을 바라며

-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에 관한 연구>

이산(양현경) 배우, 연구자

2018년 11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남배우 A’의 성폭력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해당 영화 촬영 전 신체 노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영화사 대표와 가해자는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라고 사전에 모의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의 소속사 대표도 함께 있었다. 이들에게 영화 제작 ‘현장’은 여성 배우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노출을 강요하는 것이 허용되는, 통상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시공간이었다.

2025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에 관한 연구>는 연극과 드라마, 영화 제작 과정에서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경험한 여성 배우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태프를 심층 면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작품이 먼저라는 압박 아래

연구 참여자들이 사례로 든 제작 현장 어디든 현장에서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 현장은 스태프 근로 시간과 장소 대관 시간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촬영을 마쳐야 한다는 압력이, 연극의 경우 공연을 멈출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었다. 이런 규범에 더해 경쟁률이 높고 불안정한 배우들의 고용 환경과 배우가 작품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는 배우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게 했다.

연구 참여자 B는 해외 공연 중 극장 무대 뒤에 상주하는 소방관이 자신이 의상을 갈아입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일을 겪었다. 대기실까지 가서 의상을 갈아입고 오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의상을 갈아입는 자리를 바꿀 수 없었고, 정신없이 진행되는

공연 과정에서 부스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 G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제시된 의상을 보고 서야 사전 협의한 바와 실제 촬영에서 요구하는 신체 노출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이를 조율할 수 없었다. 배우로서 의견을 제시해도 촬영 당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미뤄졌다, 당일 현장에서 배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촬영을 진행하기 일쑤다. 위에 언급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역사가해자가 의상을 찢으며 추행을 한 상황에서도 NG를 내면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촬영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에 관한 연구 (2025 독자연구)

출연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신인 배우일수록 이에 대해 사전 협의하거나, 제작진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처하기 어렵다.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는 연구 참여자 N은 신인 배우일수록 제작사와 신체 노출 범위나 대역 고용 협의가 어렵다고 말한다. 제작진이 대역 고용을 거절하기도 하고, 대역 배우가 연기하기로 사전 협의한 장면인데도 배우를 교체하지 않고 촬영을 강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연대의 힘으로 현장의 변화를

통상 ‘베드신’이라고 부르는 성행위 묘사 장면 촬영에서는 현장에 접근하는 인원을 최소화으로 제한하는 수칙이 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세트 안에는 직군별로 1~2인 정도의 스태프만 남는다. 이는 해당 장면을 연기하는 여성 배우의 심리적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현장의 인식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촬영감독인 연구 참여자 M은 세트 밖에서 대기하는 남성 스태프들이 이를 불쾌해하거나, 여성 배우가 신체를 더 노출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내용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의 사전 협의부터 현장 진행까지 총괄하는 인티머시(intimacy) 코디네이터의 고용이 활발해졌다. 이는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에서 여성 배우가 경험하는 취약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고려하는 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부다. 우리 보고서에 담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통찰이 향후 한국의 연극, 영화, 드라마 제작 현장에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도입과 제작사의 안전 배려 책임 강화 등 여성 배우들의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환경 변화에 반영되기를, 또한 지금도 어디선가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을 여성들에게 지지와 연대로 가닿기를 바란다. 